

고창 · 임실서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고창농악전수관  
‘이팝: 신의 꽃’

# 농악과 전통판타지의 콜라보

2018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판타지 감성농악 ‘이팝: 신의 꽃’이 오는 9월 1일까지 고창군 성송면에 위치한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지난 26일 성황리에 막을 올린 이번 공연은 지난해까지 고창읍성 내에서 진행됐던 상설공연을 호남 영무장 농악의 중심이자 실내외 전용 극장이 갖춰진 고창농악전수관으로 자리를 옮겨 관객들에게 쾌적한 공연관람과 고창농악의 멋을 한껏 선사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개막공연에는 설장구의 명인 이부산 씨가 특별출연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길수 고창군수 권한대행, 송영래 고창문화원장,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홍승광 상설공연추진단장과 고창군민, 관광객 등 400여명이 관람해 성황을 이뤘다.

‘이팝: 신의 꽃’은 문굿, 풍장굿, 매굿 등을 활용한 고창농악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끌려간 언니를 찾아 해매는 주인공 점례와 못 말리는 세 가족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감동과 신명으로 풀어낸 전통연희음악극이다.

9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끌려간 언니 찾아 해매는 주인공의 이야기 담아내

이날 공연을 관람한 오혜선(20·대학생)씨는 “평소 농악과 공연예술에 관심이 많아 서울에서 이번 상설공연을 보기 위해 한 달음에 찾아왔다”면서 “고창농악의 신명나는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이야기는 물론이거니와 잘 갖추어진 공연장과 감성적인 음악, 아름다운 의상 등 어디하나 정성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 보여 멀리서 온 보람이 있다”고 했다.

‘이팝: 신의 꽃’의 부대행사 중 하나인 조망각시 주막을 담당할 임연아(38)씨는 “전수관 옆 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인데 가까운 동네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진행 한다고 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도우러 왔다”면서 “멋진 상설공연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는 고창농악전수관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공연은 오는 9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고창농악전수관에서 펼쳐진다.

한편, 판타지 감성농악 ‘이팝: 신의 꽃’은 전라북도,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포럼위원회가 후원하고 진농식품이 협찬사로 참여하는 한옥상설공연이다.

공연은 오는 9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고창농악전수관에서 펼쳐진다.

여름 휴가와 방학이 맞물린 7, 8월에는 금요일 추가 편성된다. 티켓은 인터파크 및 현장구매가 가능하다.

\*\*문의 063-562-2044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필봉농악  
‘춤추는 상쇠’

# 필봉마을에서 ‘히히낭락’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춤추는 상쇠 - 히히낭락 필봉!>이 오는 2일 오후 8시에 임실군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취락원에서 개막공연을 선보인다.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춤추는 상쇠 - 히히낭락 필봉!>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로 지정된 임실필봉농악을 바탕으로 임실필봉농악보존회(보존회장 양진성)가 주관한다.

6월과 9월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7월과 8월에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에 야간상설공연을 필봉 전수교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춤추는 상쇠 - 히히낭락 필봉!>은 풍물 소리가 풍성한 40년대의 필봉 마을을 배경으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 농촌을 떠나는 마을 사람들, 마을을 찾아 쓰단에 입단한 필봉 상쇠 봉필이의 이

내일 개막... 9월까지

40년대 필봉마을 배경 마을을 찾아 쓰단에 입단한 봉필이 이야기 등으로 구성

이야기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되어, 관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실필봉농악보존회 양진성 회장은 “<히히낭락 필봉!>은 선조들 삶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농악을 바탕으로 긴 세월 꽃피어 오고 있는 필봉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가치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상설공연을 준비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두 군수 권한대행은 “멋진 한옥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펼쳐지는 필봉의 흥겨운 풍물공연을 마음껏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임실에서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1박 2일 풍물스테이, 한옥체험, 차와 함께하는 힐링타임, 타임캡슐에 추억을 남겨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한옥체험관에는 200석의 공연 관람석과 가족·단체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과 식당, 캠핑장 등이 마련돼 있으며, 전북투어패스카드를 소지한 관광객들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필봉농악보존회(☎063-643-1902)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REDCON

2018 전라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  
2기 뮤지션 모집 공고

## 꿈과 열정 다 갖춘 신예 뮤지션들은 ‘여기로’

전주소리축제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2기 뮤지션 모집... 12일까지 신청접수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함께 ‘전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 2기 참가 뮤지션을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레드콘 음악창작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전북도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지역 신진뮤지션 발굴·육성사업이다.

특히 신진 뮤지션을 찾아내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미래지향적 토대를 다진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올해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해 2기 참가 뮤지션을 모집한 뒤 국내외 무대 제공 및 멘토링 지원 등을 맡아 수행할 예정이다.

레드콘 음악창작소에는 순수 창작곡 제작이 가능한 뮤지션이라면 장르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전북도 출신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을 우대한다. 단 1기로 활동한 뮤지션일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2기 뮤지션으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음원 및 라이브 영상 제작 작업, 홍보 마케팅 분야의 지원을 받게 되며 레드콘 음악창작소 시설 공간의 레코딩 스튜디오, 연습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멘토링 및 A&R(Artists&Repertoire)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음악 창작자에게 꼭 필요한 효율적인 실무 워크숍, 전문 뮤지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 등 실제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2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서와 뮤지션 활동 계획서, 음원파일과 영상 자료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이메일(j-redcon@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음원, 영상) 심사를 통해 선발된 팀은 2차 실연 및 인터뷰를 통해 최종 2기 뮤지션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소리축제 공식홈페이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2018 전주세계소리축제 무대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외 음악가와의 협업 및 멘토링 주선, 해외무대 진출 기회 마련 등 다양한 무대와 협업의 기회를 통해 뮤지션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단체)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건 지식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홍보대사 류수영